한국문화기술 통권 제6호 2008.12. pp.247~262

〔특집 논문〕

탈식민지 이론과 중국의 문화비평

정봉희
(중국 연대대학)

차례

1. 서론
2. 수용배경
3. 탈식민지 비평의 수용양상
4. 탈식민지 이론과 문화비평
5. 결론

1. 서론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중국으로 수용된 탈식민주의 비평과 이론은 중국의 문화비평과 문학비평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으며 비평문단의 활성화를 위해 크게 기여하였다. 수용 과정에서 이루어진 탈식민지 이론의 원작 번역, 해석, 평가 및 논쟁들은 탈식민지 이론의 중국에서의 정착을 추진했으며 문학과 대중문화의 비평을 위한 효과적인 비평적 방법론을 제공하게 되고 국제화 시대에서 민족적 담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탈식민지 이론이 중국에서의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수용배경

중국의 거국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수반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이데올

로기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답습이라는 아이러니는 문화예술계에서 숙명적으로 겪게 되는 아이러니이다. 문호개방의 유례없는 물결과 함께 밀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서양 제도권의 다양하고 무분별한 이론들은 국경을 넘어 비평적 수용이라는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성한 담론의 숲을 형성했으며 그러한 숲은 민족적 담론의 주체성을 함몰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수용과정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황폐화된 문학을 구원한다는 이름으로, '문학을 현실의 박탈과 정치적 박해 및 역사적 정체 속에서 구원한다.' 는 '신성' 한 미명아래 감행되었던 것이다.[1]

80년대 중국사회에 중요한 화두를 던졌던 6집으로 편성된 문화 다큐멘터리 〈河殤〉은 그러한 정서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하류의 요절을 뜻하는 〈河殤〉은 가히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문화에 대해 치명타를 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이 다큐멘터리는 중국문화는 4대 발명이라는 특허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먼저 우주공간에 사람을 보낸 나라가 되지 못했으며 11세기에 나침반을 발견했지만 해상 강국으로 왕림하지 못했으며 유교문화는 유아독존의 위상을 수립하는데 급급했을 뿐 역사적 진화에 편승하지 못했으며 만리장성은 자아폐쇄를 상징하는 토지의 상상력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으며 생태의 균형을 잃은 황하는 죽음의 강으로 상징하고 있다.

80년대의 이러한 정서는 그 대안으로 서방의 민주와 자유, 지식에 대한 은밀한 갈망을 내포하고 있는 서방문화 서적에 대한 광범위한 번역과 소개 작업으로 이어졌다. 80년대 초 사천성인민출판사는 백여 권의 『미래를 향한 총서』를 발간하게 되는데 그 대부분은 당시 과학기술과 인문, 사회과학과 정치법률 등을 망라한 최신예 저작들에 대한 번역이었다. 그 뒤를 이어 상해번역출판사에서는 『현대서방철학번역 총서』를 발간하고 북경 三聯서점에서는 『문화: 중국과 세계』라는 총서를 발간하여 벽 여부의 서방현대 경전을 번역 출판하고 있다.[2] 이러한 번역작업을 통해 중국 지식계는 칸트, 헤겔, 신칸트주의, 신헤겔주의로 시작해서 현상학, 해석학, 프로이트, 실존주의, 서방마르크스주의, 논리분

1) 張旭東, 『비평의 종적』, 三聯書店, 2003, p.243.
2) 王岳川, 『中國鏡像-90年代文化研究』, 2001, p.27.

석철학 및 법학, 정치학, 교육학, 역사학 등 다 방면에 걸친 서방문화의 세례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문화 이론적 자원들은 다원주의적 문화시각을 구성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80년대 중기와 90년대 중국 문단은 짧은 십 몇 년 사이에 100년에 걸친 서방 이론의 궤적을 두루 섭렵했으며 다양한 방법론과 사조가 병존하는 전국시대의 형국을 조성했는데 그중 가장 큰 영향을 형성한 비평은 정신분석과 형식비평, 문화비평과 사회역사비평이었다.[3]

3. 탈식민지 비평의 수용양상

중국에서의 탈식민지이론의 소개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1988년 2월에 출판된 왕봉진의 『오늘의 서방문학이론』은 탈식민지 이론가인 사이드와의 방문 담화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張京媛의 「彼와此」[4]는 사이드의 '동방주의'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평가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사이드의 '동방주의'의 개념은 동방학이라는 범주이며 동방과 서방의 구별을 전제로 하는 하나의 본체론과 인식론적인 사유방식이며 또한 서방이 동방에 대해 지배하고 재구성하는 문체라고 규명하면서 그람시의 권력담론과 레비-스토로스의 이항대립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동방이 서방에 대한 저항, 지식과 권력의 담론은 무엇이며 타자 문화를 어떻게 진술할 것이며 자아의식이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각 민족의 문화를 분명히 획분 할 수 있는가? 등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당시 학계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1993년에 이르러 탈식민지 이론은 문예비평계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다. 그것은 사이드는 『동방주의』에 이어 『문화와 제국주의』가 1993에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이해 《讀書》 잡지 9월호에서는 張寬의 「歐美人 視野 중의 '非我族類'」를 비롯한 탈

3) 王庚生 외, 『中國當代文學史』, 高等教育出版社, pp.264~276 참조.
4) 《文學評論》, 1990년 제1기.

식민지 관련 논문 3편을 싣게 된다. 그리고 1994년에는《讀書》,《鐘山》,《文藝爭鳴》,《東方》,《光明日報》,《文藝報》등 간행물과 신문들에서는 경쟁적으로 王一川, 陳曉明, 張頤武, 王岳川, 王寧, 戴錦華, 張法, 陶東風, 楊乃川, 許紀霖, 曺莉, 陳躍紅, 邵建 등 학자들의 탈식민지 관련 논문과 대화록을 싣고 있다.[5] 이중 많은 학자들은 훗날 탈식민지 문화비평의 전문가, 권위로 장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논의들은 탈식민지 이론의 개념이나 역사에 대한 심도 있고 객관성을 가진 평가나 분석이라기보다는 탈식민지 이론에 대한 그들의 태도, 즉 칭찬, 의혹이나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테면 楊乃川은 탈식민주의를 서방 중산계급이 서방 여성들의 향수에 지겨워진 나머지 동방 여인들의 겨드랑의 악취에 미련을 가지는 심미적 獵奇로 규정하고, 그것을 유럽 중심의 문화적 식민화의 지배로 보고 사이드 탈식민지 이론이 문화 優劣論 을 비판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6] 小寶는 〈사이드 선생은 물러가라〉라는 글에서 사이드 이론을 중국을 귀찮게 하는 일종의 이론으로 보고 그 이론을 추방할 것을 주장한다.[7]

그러나 90년대 후기에 이르러 중국학자들은 점차 이러한 정서화한 경향에서 벗어나 탈식민지 비평의 내재적 논리에 대한 연구와 평가에 주력하게 된다. 王寧은 1998년에 탈식민주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포스트모더니즘 이후』(中國文學出版社, 1998, 6월)라는 책을 출판하게 된다. 그는 이 저서에서 다년간에 걸친 탈식민지 이론 연구 성과를 총화하게 된다. 그는 저서에서 탈식민지 사조가 흥행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면서 80년대 후기 포스트모더니즘이 실세하게 되면서 궐기하여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탈식민지 사조와 탈식민지 문학 등 탈식민지의 부동한 개념들을 정리, 서술하고 데리다, 바흐친, 그람시, 푸코 등 탈식민지 이론의 사상적 근원을 검토했으며 사이드, 스피박, 바바 등 중요한 탈식민지 비평가들을 비교 분석했다. 이러한 작업들은 중국 국내 독자들이 탈식민지 이론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국제적인 관련 학자들과의 대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8]

---

5) 王寧 외 편,『西方當代文學批評在中國』, 백화문예출판사, 2000, p.523.
6) 楊乃川,「사이드와 그의 탈식민지 문예비평이론」,《文藝爭鳴》, 1994년, 제2기.
7) 상해,《매주문예절목》, 1994년 5월 9일 제97기.

1995년 대만의 매전출판공사는 張京媛이 엮은 『탈식민지 이론과 문화적 인정』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 대륙과 홍콩, 대만 및 해외화교 학자들의 탈식민지 관련 논문들을 수록하고 있다. 그녀는 이 논문집의 서문에서 탈식민주의 비평은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문학연구와는 달리 문학 텍스트의 '문학성'을 뛰어넘어 국제적인 정치와 금융, 글로벌 회사, 패권 국가와 기타 국가의 관계까지 그 시야를 확대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문화와 문학으로 전환하여 재현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되며 제국주의의 문화 침략 ; 종주국과 식민지의 관계 ; 제3세계 엘리트 지식인들의 문화적 신분과 정치참여, 종족과 문화, 역사의 '타자'적 진술, 서방 형의상학적인 담론의 국한성이 등을 망라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비평의 목적은 식민주의와 서방문화 사이의 영향관계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고 그러한 상호 영향관계는 어떻게 진술 되는가 하는 것을 고찰하는데 있다고 지적한다.[9]

徐의 『포스트모더니즘과 탈식민지를 향해』(1996,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년 7월)중국 학자가 탈식민지 이론을 연구한 역작으로 탈식민지 개념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것을 주장한다. 그 첫 번째 차원은 식민지 경험에 관련된 글쓰기와 읽기이고 ; 두 번째는 서방이 제3세계에 대한 '식민화 주체'의 구성이고 ; 세 번째 차원은 제3세계의 식민주의와 새로운 식민주의 관념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양식, 책략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는 탈식민지비평과 포스트모더니즘, 민족주의, 본토주의, 반 식민주의와의 관계와 구별, 탈식민지 비평의 타자성향과 자아성향, 제3세계비평과 '서민의 기억' 등 문제에 대해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10]

劉康과 金衡山의 논문 「탈식민주의 비평: 서방에서 중국으로」[11]는 난해하고 현학적인 탈식민지 이론을 간단명료한 문체로 해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탈식민지 이론의 전개양상과 그 주요 대표인물, 주요관념을 소개하고 그 역사적 연혁과 함께 주요 이론 명제의 시대적 배경을 분석했으며 ; 탈식민지 이론이

8) 王寧 외 편, 『西方當代文學批評在中國』, 백화문예출판사, 2000, pp.524~525.
9) 위의 책, p.526.
10) 위의 책, p.526.
11) 《文學批評》, 1998, 제1기.

해외의 중국학 연구에 미친 영향과 함께 집중적으로 탈식민주의 이론의 틀로 중국과 서방의 관계, 그리고 중국의 근대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필자는 탈식민지 이론의 중국에서의 수용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이 논문을 요약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논문은 탈식민지 이론이 산생한 시대적 배경을 60년대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국제적 정세에 두고 있다. 즉 이 시기의 서방 세계는 도처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던 시기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1969년 프랑스에서는 5월의 폭동이 일어나고 러시아의 '사회제국주의'는 '체코 사건'을 도발하고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정신세뇌 운동 거치게 된다. 이러한 국제적 정세는 서방문화의 정체성, 그리고 윤리도덕, 종교와 가치관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한편으로는 60년대는 정보화를 특징으로 세계의 경제적 질서가 재편되면서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에 진입한다.

탈식민지 이론의 직접적인 근원으로 되고 있는 포스트구조주의는 60년대 서방 사회와 문화의 혼란과 변화의 반영이고 문화적 반성으로 보게 된다. 그 논리적 궤적은 첫 번째 단계로 서방문화와 현대문화는 비서방문화에 영향을 주었고 두 번째 단계로 비서방문화는 근대화를 위해 서방의 언어와 문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서방이 현대 비서방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서방화 혹은 식민화한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의 문화와 이질적인 비서방 타자문화를 추구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체계로 돌아오는 결과에 이른다. 탈식민지 비평이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소위 자아와 타자의 관계이다.

탈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은 대체적으로 서방문화와 전통에 대한 자기비판과 자기성찰의 특징을 가지며 특히 언어와 재현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서방문화 내부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이드가 제출한 '동방주의'의 핵심과제 역시 서방문화 내부의 자아와 타자의 관계문제이다. 서방학술계에서 사이드가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서방 문화의 형의상학 전통과 지식계의 헤게모니 체계에 대한 비판에 있다고 본다. 80년대 말에 이르러 바바와 스피박 등 탈식민지 이론가들의 출현으로 비서방 국가 자체의 문화 문제가 어느 정도 주목을 받게 되지만 역시 서방문화체계 내부의 언어와 재현의 문제

라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탈식민지주의는 현대성에 대한 반성이 서방의 문제로부터 세계적 문제로 그 논의의 영역을 확대한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탈식민주의는 또한 주변과 타자의 입장에서 서방의 현대성을 비판하고 해체하며 서방문화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있지만 그 사유의 기본적 공간은 서방의 현대화와 지식체계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사이드 이후 탈식민지 이론은 인도계 학자들에 의해 논쟁과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기타 사조의 이론을 흡수하고 융합하면서 점차 세 가지 주요한 이론적 줄기를 형성하게 되는데 스피박을 대표로하는 해체주의 성향, 바바를 대표로하는 정신분석의 성향, 모한디(Mohandhi)를 대표로하는 여권주의 성향이 그것이다. 서방이 동방에 대한 문화적 재현과 문화적 패권 그리고 지식적 폭력은 대체로 세 가지인데 그 첫째는 서방이 인지적 차원에서 어떻게 동방을 재현 혹은 외곡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담론과 권력의 관계문제인데 스피박은 이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다. 둘째는 무의식과 심리적인 차원의 식민화로써 바바는 심리적인 요소가 재현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기능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며 심리분석의 차원에서 혼잡성(hybridity) 개념을 제출하게 된다. 셋째는 지식 기구의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출판, 학술연구, 매체, 교육, 오락 등에 대한 공제이다. 이는 심리 혹은 언어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문제로 부각된다. 사이드y는 푸코의 이론을 활용하여 권력과 기구들이 지식의 생성과정에서의 중요한 기능을 분석한바 있고 스피박은 그람시의 문화 패권이론을 통해 이를 분석, 비판한 바가 있다. 탈식민주의가 주목하는 이 세 가지 문제는 그 이론의 기본적 근원이 포스트구조주의와 해체주의, 정신분석과 서방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을 다시 입증한다.

탈식민주의 비평은 서방의 한학 혹은 중국학 연구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방 중심주의'와 '문족/국가'의 문제의식을 중국 현대화의 거대 담론에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그러한 담론이 어떻게 구현되는가 하는 문제는 다음 장에서 논의 될 문제이다.

4. 탈식민지 이론과 문화비평

탈식민주의는 현대 다양한 문화정치이론과 비평방법이 집합된 담론이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권력 중심의 해체와 맥락을 같이하면서 다원화의 문화연구 방법을 주도했으며 정치, 사회적 이데올로기 담론을 이론과 비평에 도입하면서 구조, 텍스트 본위주의라는 형식주의 담론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다원주의는 문화의 세계화와 본토화라는 양극의 담론을 재생산하게 된다. 본토화의 일환으로 가장 부각된 것이 민족주의 담론이라고 하겠다.

90년대 국제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과 좌절의 과정들은 중국 국민들의 민족적인 정서를 자극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정서를 대변하듯 학계에서도 민족주의 정서를 고양하는 담론들이 쏟아져 나왔다. 1996년에 출판된『중국은 no라고 할 수 있다』등 일련의 저서들은 이러한 강렬한 민족적 정서를 잘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저서들의 제목이나 소제목들은 직설적으로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전쟁준비를 기탄하지 말라', '홀리우드를 불사르자', '필요하다면 우리는 지금 최혜국 대우를 선택하지 말자, 장래에 당신들에게도 그 대우를 주지 않겠다', '필요하다면 제 2의 사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등이 그것이다.[12]

그 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교편을 잡은 학자들은『중국에 대한 妖鬼화의 배후』[13]라는 책을 출간하여 미국의 문화적 패권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이 책에서 吳劍平은「홀리우드와 중국」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서방 특히 미국이 홀리우드 영화 권에서 어떻게 중국을 적대시하고 추화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劉康이 발표한「미국에서의 중국학」이라는 글은 학술적 시각에서 서방의 중국에 대한 誤讀과 권력적 억압의 경향을 분석했으며 냉전의 사고가 여전함을 지적하고 진정으로 미국의 중국학을 이해하려면 중국과 미국의 현실적 정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전환기에 들어선 세계 학술과 지식의 맥락을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盛洪은『爲萬世開太平』[14]이라

12) 王岳川, 앞의 책, p.194.
13) 劉康 외,『妖魔化中國的背後』,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는 저서를 출간하여 서방문명이 세계를 구원할 수 없다는 명제를 다루면서 서방이 동방에 대한 우위 의식은 평화와 평등 원칙의 승리가 아니라 '무기 선진성의 승리'라고 하면서 국가/민족의 이익이 모든 원칙을 능가한다고 보고 민족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함을 지적했다.1998년 李希光은 『구경 중국은 얼마나 나쁜가?』[15]에서는 서방이 중국에 대한 편견과 기시를 다루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바탕으로 형성된 미국의 가치관을 인류의 공동 신앙과 진리로 추대하면서 도덕과 사상적 경찰로 자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16]이라는 책을 통해 국제 자본의 중국 유입은 중국 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그들의 이러한 경제적 침투는 정치 문화적 기도와 국가경제의 안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17] 물론 이러한 담론들은 민간의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면서 흥행했지만 결코 문화비평의 주류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주류는 중용사상으로 국제화와 본토화의 균형이라고 할 것이다.

국제화의 진행과정에서 민족적 담론의 상실 혹은 실종은 국내학자들의 불안과 초조 심리를 자아내어 중국문단의 현실을 '실어증'이라고 진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중국문단의 '비식민화'를 주장하는 담론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감은 중국인이 서방문화 패권에 대한 인정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라고도 할 수 있다.

曺順庚은 「문학이론의 실어증과 문화의 병태」[18]라는 글을 발표하여 중국 현대, 당대[19] 문학이론이 전폭적으로 서방의 문예이론을 차용하게 되면서 자신의 문학적 담론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의 표현과 의사소통, 해독의 학술적 규범을 상실하여 서방의 문학적 담론을 떠나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되고 마는 1세기에 걸친 민족적 담론의 공백을 지적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실어증이 문화의 병적인 심리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병적인 현상

14) 盛洪, 『爲萬世開太平(만세의 태평시대를 열기 위하여)』, 北京大學出版社, 1999.
15) 李希光, 『中國有多環?』, 江蘇人民出版社, 1998.
16) 曾華國, 『收購中國』, 江蘇人民出版社, 1998.
17) 王岳川, 앞의 책, pp.194~198.
18) 曺順庚, 「文論失語症與文化病態」, 《文藝爭鳴》, 1996, 제2기.
19) 중국 학계에서는 역사 시기를 나눌 때 1949년을 분기점으로 현대와 당대를 나누고 있다.

은 중서문화의 경쟁과 충돌의 결과로서 그 내부에는 좌절과 패배의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자만과 자비라는 양극을 달리며 균형을 잃은 문화적 심리는 민족의 고유한 전통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과 전면적인 서구화(물론 그 서구화는 구소련의 문화적 담론에 대한 답습도 포함된다.)의 경향으로 나타난다. 그 표현 형태는 네 가지인데 첫째는 장기적으로 축적된 문화허무주의이다. 즉 전통문화를 부정하는 과정이 전통문화와 전통 문학이론의 '낯설게 하기'의 결과를 자아냈다는 것이다. 그 둘째는 중국 고전에 대한 해독 능력의 보편적인 저하이다. 그 셋째는 서방문화에 대한 콤플렉스로써 문화가치판단의 왜곡인데 서방의 기준으로 중국의 문학과 문학이론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고 문화적 보수주의자들의 중국의 문화전통의 우수성을 서방의 그것과 유사한데서 찾는 경향이다. 그 넷째는 중국 문학이론의 창조력의 저하인데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학이론 담론의 재생력 부족이다.

중국문학이론 담론의 재구성 논의는 이러한 '실어증'을 극복하려는 중국 학계의 노력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문학이론의 재구성을 위해 張頤武은 『가장자리에서의 추구』[20]라는 저서에서 '제3세계문화'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그에 의하면 '제3세계문화'의 이론과 비평은 제1세계와 제3세계의 이항대립관계를 새롭게 인식하여 그 대립관계를 번복하고 전도하며 나아가 해체하는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 제3세계인들이 자신의 문화, 언어적 생존 공간에서 '자아본위'의 이론을 도출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책략으로 그는 두 가지 책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질의의 책략', 즉 서방이론과 本土 텍스트 사이의 봉합할 수 없는 차이를 식별하고 분석하여 서방이론이 모든 문화를 초월한 메타언어로써의 한계성을 찾아내고 그 배후에 깔려있는 이데올로기적 징후를 발견한다는 책략이다. 다른 하나의 책략은 소위 '재구성 책략'으로, 즉 '질의의 책략'을 바탕으로 새로운 본토의 이론을 구성하여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책략이다. 이러한 책략은 서방이론에 대한 배척이나 대체이라기보다는 그 이론에 대한 재생산 과정으로 서방의 담론을 활용하여 제1세계에서 말할 수 없는 새로운 담론의 창조를 의미하며 본토현실의 생존공간과 언어 상황, 그리고 본토의 경

20) 張頤武, 『從邊緣處追索』, 時代文藝出版社, 1993.

험과 텍스트에 뿌리를 둔 새로운 담론을 형성한다는 책략이다. 여기서 저자는 국제화와 본토화의 이항대립관계에서 중간노선을 선택하려는 저의를 잘 나타내고 있다.

王一川 등은 「'현대성'에서 '中華성'」[21]이라는 글에서 중국문화의 지식 유형을 고전성과 현대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전성의 개념은 1840년대 이전의 자족적이고 원만한 경계에서 세계문화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으로 중국문화 중심이라는 콤플렉스가 민족심리에 깊이 침잠되었던 것이다. 현대성이란 개념은 서방의 현대성을 주요한 참조 체계로 하여 계몽과 구원의 '공정' 가운데 형성된 것으로 그 변혁은 '他者化'의 과정을 경험했다고 지적한다. 90년대에 이르러 중국의 문화 상황은 전환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사회의 시장화, 심미적 가치관의 범속화, 문화가치의 다원화는 '타자화'와 '현대성'의 울타리를 초월하여 '중화성'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화성'은 이중계승, 즉 '古典性'과 '현대성'을 계승하고 이중초월, 즉 '고전성'과 '현대성'을 초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曺順庚과 李思屈은 「중국 문예이론 담론의 재구성 문제를 다시 논함」[22]에서는 중국문예이론 담론을 재구성하는 과제와 도경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그들은 고대 문예이론의 현대적 전환의 과제와 서방문예이론의 절대적 기준을 타파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재구성의 첫 번째 도경은 고향의 회귀이다. 즉 전통적인 담론의 연구를 통해 중국 고유의 언술 방식을 발견하는 것이고 전통적인 언술방식에 대한 연구는 표층언어 현상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재하고 있는 의미의 생성방식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하여 전통으로의 회귀는 文言 전통의 회귀가 아니라 백화문 전통의 회귀이며 중국의 현대 생활의 구어체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담론의 본질은 표면적인 낱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의미와 가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과 가치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테면 道家의 언어로써 언어를 부정하는 과정은 주어진 의미를 부정한다는

21) 王一川 외, 「從"現代性"到"中華性"」, 《文藝爭鳴》, 1994, 제2기.
22) 曺順庚과 李思屈, 「再論重建中國文論話語」, 《文學批評》, 1997, 제4기.

점에서 서방의 해체주의와 비슷하지만 그 허무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형의 상학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구성의 두 번째 경로는 '혼잡 공생'의 필연성과 필요성이다. 소위 '혼잡 공생'은 회귀의 목적을 초월에 두기 위한 담론의 장치로 고전적인 담론과 서방 담론의 잡다한 언어의 경쟁 속에서 고전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면서 중서의 문화적 대화를 유지하여 중국 당대인들의 현실생활과 예술에 밀착되어 있는 담론 체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중국 특유의 담론 체계를 구성하는 초기 단계로서의 특징이다. 그 세 번째 경로는 중국 고유의 담론의 현실적 적용이다.

王岳川은 탈식민지 시대를 이론, 의식, 동방, 서방, 전 현대, 현대, 후 현대, 민족/국가/계급/성별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콘텍스트가 공존하는 시대로 진단하고 중국의 형상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콘텍스트를 뛰어넘는 문화 연구를 지향해야 하며 중국의 당대 현실적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중국 개방의 21세기적 비전을 직면하여 보다 효과적인 문화 분석에 주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23]

결과적으로 탈식민지 이론은 중국 문화비평계에서 국제화와 본토화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러한 논쟁은 다시 국제화/본토화의 이항 대립적 담론을 생산하고 그러한 극단적인 대립에서 제3의 길을 제시하는 절충주의 담론을 생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탈식민지 이론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텍스트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경향은 80년대 말, 90년대 초 張藝謀 등 감독의 제작한 영화와 해외 회교들의 자서전적 작품들이 국제 사회에서 흥행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다. 이들 작품들이 서방 독자들의 심미적 감흥을 일으켰기 때문에 탈식민지 비평의 중요한 대상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張藝謀 등의 작품은 비단 국제에서 흥행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시청자와 독자들을 동원했는데 유독 비평계에서만큼은 비판의 도마에 올랐던 것이다. 이는 그들의 작품을 보는 탈식민지 이론의 시각과 갈라놓을 수 없다.

王干은 「누구를 위해 大紅 등롱을 거는가?」[24]라는 글에서 영화 〈大紅 燈籠을

23) 王岳川, 앞의 책.
24) 王干, 「大紅燈籠爲誰扌圭?」, 《文匯報》, 1992년 10월 14일호.

높이 걸다〉는 張藝謀의 마음속에 잠재적인 시청자는 중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임을 지적하면서 '등롱'이라는 거짓 민속으로 타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劉登閣은 20세기 후기에 들어서 중국인들은 새로운 동방의 신화를 창조하고 있는데 그 특징으로 우매성, 낙후성, 낯설게 함, 황당함, 신비함이라고 지적하면서 陳凱歌의 영화 〈覇王別姬〉는 중국의 시대 落後적 발상으로 동방 낙후의 共鳴 속에서 순간적 영예를 얻게 되었다고 비판하고 장예모의 영화들은 신바하고 낙후하며 기이한 동방신화의 허구라고 지적하고 있다.[25]

張頤武는 「세계적 탈식민지 콘텍스트 중에서의 장예모」[26]라는 글을 발표하여 장예모의 신화적 현상을 탈식민지 이론의 콘텍스트 속에서 분석하고 있다. 즉 장예모의 신화를 제1세계와 제3세계의 대중매체가 공동으로 창조한 심상으로 규정하면서 탈식민주의의 콘텍스트가 장예모의 신화를 구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위 논문에서 장예모 영화의 기본 책략은 '窺視'에 대한 끊임 없는 주목이라고 지적한다. 장예모가 추구하고 있는 경지는 은밀하고 주변화한 처지, 알려지지 않은 '奇觀'의 세계, 막연하고 모호한 세계에 대한 집착이라고 한다. 이러한 집착은 시간성의 코드를 해체하면서 신화적이고 우화적이며 은밀한 전기적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이는 '현대성'의 담론과 단절된 공간속에서 중국 특유의 문화를 은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그의 이러한 신비한 공간은 그러한 문화에 익숙한 중국 시청자가 아니라 서방의 시청자로 그들에게 타자성의 소비를 제공하고 낯설고 야만적이고 꿈같이 기이한 풍경을 제시하게 된다고 한다. 장예모의 '窺視'는 두 가지 모순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차이와 공감이 바로 그것이다. 즉 장예모의 작품들에서 표상되는 성이나 민속, 폭력 등 전근대적인 은밀한 세계의 구성은 서방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시각적 차이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의 플롯화한 이야기 구성은 다시 억압된 무의식적 욕망에 부응하면서 문화를 초월한 메타언어를 획득하게 되어 차이와 공명의 방식으로 중국에 관한 환영과 환상을 제공한다고 한다. 그것은 '현대성'의 밖에 존재함으로 서방의 현

25) 劉登閣, 『全球文化風暴(전 지구적 문화의 폭풍)』,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00, pp.64~70.
26) 張頤武, 「全球性後植民語境中的張藝謀」, 《當代電影》, 1993년 제3기.

재적 담론으로 다시 쓴 것이 아닌 역사 밖의 다른 하나의 공간이이며 또한 역사적으로 낙후한 전근대적인 공간이라는 것이다. 장예모의 영화가 국제적인 흥행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세계적인 탈식민지 콘텍스트와도 갈라놓을 수 없다. 20세기 20년대부터 시작한 장예모 이전의 영화는 대체적으로 그 제 3 세계적인 특징으로 인해 국내용이었던 것이다. 장예모의 영화가 서술하고 있는 콘텍스트는 그 이야기 시기의 콘텍스트가 아니라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시대의 콘텍스트였던 것이다. 장예모의 영화는 '중국'은 포스트모던이 제3세계에서 자신의 형상을 현시한 것으로써 탈식민지의 콘텍스트를 잘 반영했던 것이다. 제임슨은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의 최종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철저한 공간화로써, 사유와 존재의 경험, 문화 상품을 공간화하고 있다'[27]고 지적한다. 장예모는 이러한 공간화의 책략을 통해 중국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되었으며 억압되었던 잠재적 역사를 다시 기록했던 것이다. 그것은 또한 중국의 기록의 역사와 서방담론의 제어에서 벗어난 억압된 무의식을 석방했던 것이다.

탈식민지 비평은 서방의 각종 이론들 가운데서 뒤늦게 들어 온 이론이지만 중국의 문화비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이론이다. 탈식민지 이론은 서방의 문화적 패권과 다원주의 시대를 직면하여 새로운 중국의 형상을 다시 쓸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던져주었으며 서방의 중국에 대한 규시와 기시에 저항하고 비판하며, 동서방의 차이와 공명이 인정되는 그러한 문화 신분의 안정감과 균형감에 대한 중국인들의 추구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중국에서의 탈식민지 이론은 다방면에 걸쳐 전폭적으로 전개되었고 또 전개되고 있는 문화연구 사조이다. 즉 건축, 패션, 소비, 음악, 문학, 정치, 사회, 역사, 경제 등등 여러 영역에 걸쳐 적용되면서 그 광범위한 영향력을 과시한 서방

27) 제임슨, 唐小兵 역『後現代主義與文化理論』, 陝西 師範大學出版社, 1987.

이론의 하나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주로 지식계와 대중문화 비평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수용양상을 극히 개괄적으로 고찰했다. 이러한 고찰이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시작으로 되기를 내심 기대하며 본고를 마치려 한다.

참고문헌

張旭東, 『비평의 종적』, 三聯書店, 2003.
王岳川, 『中國鏡像-90年代文化研究』, 2001.
王庚生 외, 『中國當代文學史』, 高等教育出版社.
《文學評論》, 1990년 제1기.
王寧 외 편, 『西方當代文學批評在中國』, 백화문예출판사, 2000.
楊乃川, 「사이드와 그의 탈식민지 문예비평이론」, 《文藝爭鳴》, 1994년, 제2기.
상해, 《매주문예절목》, 1994년 5월 9일 제97기.
《文學批評》, 1998, 제1기.
劉康 외, 『妖魔化中國的背後』,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盛洪, 『爲萬世開太平(만세의 태평시대를 열기 위하여)』, 北京大學出版社, 1999.
李希光, 『中國有多環?』, 江蘇人民出版社, 1998.
曾華國, 『收購中國』, 江蘇人民出版社, 1998.
曺順庚, 「文論失語症與文化病態」, 《文藝爭鳴》, 1996, 제2기.
張臣貢武, 『從邊緣處追索』, 時代文藝出版社, 1993.
王一川 외, 「從"現代性"到"中華性"」, 《文藝爭鳴》, 1994, 제2기.
曺順庚과 李思屈, 「再論重建中國文論話語」, 《文學批評》, 1997, 제4기.
王干, 「大紅燈籠爲誰扌圭?」, 《文匯報》, 1992년 10월 14일호.
劉登閣, 『全球文化風暴(전 지구적 문화의 폭풍)』,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00.
張頤武, 「全球性後植民語境中的張藝謀」, 《當代電影》, 1993년 제3기.
제임슨, 唐小兵 역 『後現代主義與文化理論』, 陝西 師範大學出版社, 1987.